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품을 창작한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

I. 서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면서 인간의 능력을 학습시켜 만들어낸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단어를 입력하거나 러프 스케치를 그리면 자동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 그림 사이트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영역이 확대되고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작품을 창작한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 문제도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22년 8월, 미국에서 열린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 대회에서 디지털 아트 부문에 출품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이란 작품이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이 그림은 상세한 이미지로 변환해 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출품한 작품이었고, 인공지능 작품이 우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짙어졌다.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작품을 창작한 사용자에게 상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었다. 인공지능을 사용한 창작물의 경우 다른 사람의 화풍을 학습시켜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은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그림으로 비슷한 창작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문화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견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작품을 창작한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나의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한 뒤, 결론에서 주장을 정리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해법과 대안 제시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II. 본론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배우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계학습방법인 ‘딥 러닝’을 사용하는 데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딥 러닝은 다른 사람의 화풍을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본래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작품을 창작한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면 안 된다. 창작자의 화풍을 학습시키는 과정 속에서 예술적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며,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창작한 작품들이 증가하고 그에 대한 저작권을 사용자가 가지게 된다면 그림을 그리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대에는 예술을 창작하는 인공지능 외에도 수많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우리 삶에 녹아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음식점에서 주문을 받는 직원 대신 키오스크가 자리를 차지하게 된 사례가 그 예이다. 예술을 창작하는 인공지능일 경우,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는 종사자에게 의뢰를 하는 것보다 값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퀄리티 높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단 점에서 사용자의 이목을 끌게 된다. 결국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여 본래 업계 종사자들의 처우에 악영향을 끼친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품으로 상업적 이득을 취

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작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레이어¹⁾를 보지 않고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창작한 작품인지 직접 그려낸 작품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그림을 그리는 일의 종사자는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의 값어치가 나오지 않아 작품을 파는 데 있어서 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물의 증가는 문화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킨다. 똑같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작품은 비슷한 퀄리티와 화풍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양산형²⁾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양산형 작품의 수 증가는 예술 산업계의 창조성과 독창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예술 작품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보는 사람들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양산형 작품과 같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슷한 작품이 증가될 경우, 비슷한 시야로 작품을 바라보게 되어 활발한 문화 산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끼친다. 특히 문화 산업의 경제 분야에 있어서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물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면 빠르고 쉽게 창작해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작업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 내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예술 문화 산업 분야에서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소비 활동을 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인공지능 작품의 대량 생산으로 공급량은 증가하게 되지만 소비자의 수요는 많지 않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하던 창작자, 즉 노동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며 문화 산업 분야의 시장 경제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 디플레이션 현상에서 창작자이자 노동자가 겪게 되는 피해에 대해 어빙 피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동자들은 인플레이션 때도 피해를 보고 디플레이션 때도 피해를 본다. 하나의 계급으로서 전체를 보면 노동자들의 전체 실질 임금은 인플레이션 동안 임금이 생활비 인상폭을 따라 잡지 못해서 떨어지거나 일자리를 따라 잡지 못해서 떨어지거나 디플레이션 동안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때문에 떨어지게 된다.³⁾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을 하나의 예술 창작 도구로 사용하여 인공지능 사용자의 아이디어로 작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작권이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작품을 창작할 때 사용하는 예술 창작의 도구가 물감이나 붓 같은 형태에서 인공지능으로 바뀐 것뿐이며 작품을 창작하는 데 사용한 구상력을 사용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품의 형태를 구상하는 데 활용된 일부의 아이디어만을 사용자의 저작권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화풍을 사용하여 창조한 작품이므로 ‘모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은 인간이 표현한 것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낸 작품의 경우 저작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1) 디지털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되는 기능으로 일종의 종이 역할을 하는 것.

2) 비슷한 것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3) 어빙 피셔, 『화폐 착각』, 정명진 옮김, 부글북스, 2016, 123쪽

III. 결론

결국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작품을 창작한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게 되면 본래 창작자의 권리와 문화 산업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작품을 창작한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미래에 있어 다양한 산업과 가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이점이 존재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용했을 때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결함이 존재한다. 본래 화풍을 지닌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계 문화 산업의 부흥과 더불어 사람들의 저작권 윤리 의식에도 경각심을 심어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딥 러닝을 통하여 인공지능에 화풍을 학습시킬 때는 반드시 학습시키고자 하는 화풍의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 이루어져야 한다. 허락을 받지 않은 화풍을 사용하는 것은 도용과 다름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한다. 더불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품을 창작한 사용자에게는 저작권이 부여될 수 없다는 점을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이트에 명시하여 사용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IV. 참고자료

미국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에 대한 기사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05019024>